

27 崔南善의 朝鮮遊覽歌

(최남선 조선유람가)

조선 유람가는 六卷 (육각) 崔南善 (최
남선) 선생이 1928년 (戊辰) 年 5월 23일에

태고한 국토예찬 (國土禮贊) 을 노래한
詩(시) 다 57 쪽의 문고판 크기의 2권은 책

자인데 출판은 1947년 8월이다

선생은 국토를 찬미하는 80 소절 (小節)

이 시(詩)와 조선 유람기 별곡(朝鮮遊

覽歌別曲) 20 소절(小節) 해산 두곡 100 소절

에 당하는 곡도 예찬을 썼다

이 시(詩)인 김영환(金永煥) 씨와 백두

봉(白島嶺)에서 곡(曲)을 부쳐 유람기(遊

覽歌)라 했다

80 소절의 내용을 보면 경기~9 소절

충청~7 소절 전라~10 소절 경상~19 소절

강원~5 소절 황해~5 소절 평안~8 소절 인

제 경상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

20X10

20X10

하고 있다

이 것이 후기 자본주의 범주에 속해당 된

런지능 모른지만 노래 가사의 내용이 지

방 마다의 역사 지리적 사실을 부각 시

키 명사. 국토론 노래 한 것이란 대서 대란

히 흥미롭다 이런 뜻에서 국토론 다루

는 사람이 보면 꼭 한번 짚은 읽어 보

아마 할 것으로 판단 된다

음향 인생은 책 버리게 이렇게 말하고

있다 「조선의 노래 한 것이니 그 산하

(山河)를 노래 하는 것이며 산하에 들어
 있는 동물을 노래 하는 것이며 산하와 동
 물이 鯨(경) 되고 鱗(린) 되어 자아낸 문화
 의 비단을 노래 하는 것입니다 노래 하고
 노래 하여 한여의 노래에 까지 우리의
 순하고 정성스러운 예찬의 음율이
 소머 들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고.
 유감이 | 를 을 인민 大地(대지)의 거
 롭고 힘 기동 이 되어 하늘을 버티고 선
 백두의 성산 맹호의 수파람이 울리는

거기 성인이 나섰구나 영웅 같겠네 >

그 전 < 한때를 내어 던져 근수 삼천리

무종화 항내 단한 대조선 반도

산 아가 돌으시나 물이 끓구나

백화가 얼하리진 문화의 동산 >

1927년 여희전문학교의 이춘택 (李春澤)

교수가 동아일보에 <서울은 이미 정성

(京城)이 아니고 베이징 (京城)이다 > 라는

칼럼을 썼다 이것은 당시 조선총독부

관 서울의 권리 소유 통째로 남포에 ~~있~~

20x10

1. 대문자 ^합한인 ~~회~~병 10 번 만에 서훈의
 2. 량이 80% 정도가 일본인 소유로 넘어
 3. 갔다는 것이 있었는데 동아 일보가 조선 일보
 4. 는 이것을 문제 삼아 ~~총~~ <동도여 동도여
 5. 량 따지지 댁자 량 따지지 댁자>고 격응함은
 6. 한편 ^육출(육당) 신영웅 백두산에 보내
 7. 어 <백두산 근찬기 ~~동~~ (白頭山 勸學記)> 등
 8. 쓰시게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진작 시
 9. 키기 든 했다